"해킹해줍니다"… 개인정보 700만건 빼돌려

전남경찰, 7명 구속·5명 불구속
SNS 의뢰…385개 사이트 해킹
LGU+ 고객정보유출 피해 12배
정보 유출 결혼정보업체 등 피해

SNS를 통해 해킹 의뢰를 받고 결혼정보업체 등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 700만 건을 빼돌린 국내 범죄 조직이 입건됐다.

20일 전남경찰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웹사이트를 해킹해 고객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국내 해킹 조직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께부터 기획이사 B씨, 전문 해커 C씨 등과 함께 피라미드식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385개 웹사이트를 해킹해 약 700만 건의 고객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상에 '해킹 의뢰'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의뢰인으로부터 건당 100만~500만원의 돈을 받고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의 단가는 해당 웹사이트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데이터베이스 구축량 등을 바탕으로 책정됐다.

처음에는 A씨가 15개의 불법 사행성 도박 사이트를 운영·관리해 오면서 영업에 유리한 정보를 얻기 위해 경쟁 도박 사이트를 해킹하기 시작했지만, 이후 전문 해커를 고용해 악성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하거나 SNS를 통해 해킹을 의뢰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확장했다.

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서울, 경기도, 충남 등 지역 각지에서 도박 사이트를 제작·관리해주는 영업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디도스 공격에 활용할 좀비PC(악성코드에 감염돼 해커 명령대로 작동하는 컴퓨터)를 대량 제작하기 위해 해외에 가상 서버를 구축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 혐의로도 입건했다.

경찰이 입수한 SNS 대화자료에는 A씨 일당이 시간당 15만~20만원의 대가를 받고 의뢰인의 경쟁 대상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DDoS·서비스 거부 공격)하는 방식으로 해당 웹사이트를 마비시켜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도록 의뢰받는 내용이 담겼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소,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 기본정보뿐 아니라 출신 대학이나 연고지, 수입, 직업, 주식 투자액 같은 세부 정보도 함께 담겨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결혼정보업체나 대출상담사이트 등에서 고객 유치 등을 위해 이들 조직에 연락해 경제 언론사·경쟁 대상 결혼정보업체·성형외과·주식 투자 사이트 등 해킹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킹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의뢰 업체들을 대상으로도 추후 입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30여개의 계좌를 특정해 범죄 수익금 10억 원가량을 추징·보전하고, 해킹한 개인정보 재판매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조해 피해 업체에 해킹 사실을 통보하고, 개인정보 유출 근절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 조직이 실력과시나 금품요구를 위해 해킹을 시도해 온 것과 달리, 국내 조직에 의해 대규모 해킹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한 사건"이라며 "이번에 검거된 국내 조직에 의한 개인정보 해킹 피해 규모는 최근 대기업(LG유플러스)에서 발생한 고객정보유출 피해의 약 12배에 달하는 700만 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인들은 보안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취약점이 발견된 홈페이지를 최우선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며 "기업에서는 서버와 OS보안 백신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보관 중인 개인정보를 반드시 암호화해야 한다. 개인도 PC나 스마트폰 보안 업데이트를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키오스크 체험 광주 동구 정보화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20일 동구청 별관 4층 정보화교육장에서 생활, 동사무소 민원 서류 등 키오스크(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정보 단말기) 체험을 하고 있다. 동구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한글심화, 이미지 편집 등 8개 분야를 연중 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공정한 재판과 신속한 권리구제 주력"

광주고법원장·지법원장 취임
배기열 "국민 신뢰 쌓을 것"
박병태 "시대 발맞춰 변화"

배기열(사법연수원 17기·58) 제39대 광주고등법원장과 박병태(사법연수원 25기·55) 제43대 광주지방법원장이 20일 각각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배 신임 고등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공정한 재판과 신속한 권리 구제로 국민의 신뢰를 쌓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법원의 존재 이유는 사법 서비스 수요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신뢰를 얻기 위해선 사려 깊고 충실한 심리(사실·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는 재판의 모든 과정)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배 신임 고등법원장은 또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입장을 경청·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양심·소신이라는 미명 아래 설익고 얕은 정의감 또는 특정 가치관·신념에 지나치게 함몰되거나 사회 평균인의 건전한 상식과 동떨어진 독선·아집에 흐르는 것은 아닌지도 늘 경계·숙고·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기열 법원장

박병태 법원장

배 신임 고등법원장은 대구 대건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고, 제27회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 신임 지방법원장도 취임식에서 "광주지방법원의 행정업무를 책임지는 법원장으로서 법원 가족들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외부의 부당한 비난에 대해서는 튼튼한 울타리 역할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신임 지방법원장은 "지금 법원은 영상재판을 활성화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업무환경을 받아들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흥 출신인 박 신임 지방법원장은 서울 오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 임용돼 대구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최근까지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활동했다. 특히 박 지방법원장은 광주에서 처음으로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통해 임명됐다. 양가람 기자